

비교과 활동 미반영·최소화... 高3 구제 나선 대학가

경희대 등 출결사항 입시평가 제외 연세대,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대학 방안에 재수생 역차별 논란도



6월 모의평가 치르는 고3 수험생들

/뉴스시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재학생이 재수생에 견줘 불리 해졌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주요 대학들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학교와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평가하기 위한 평가 수정안을 내놨다.

최근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는 코로나19에 따른 2021학년도 입학전형 변경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학종 서류 전형에서 고3 1학기 수상, 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와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재학생이 졸업생보다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게 하면서 코로나19에도 비교과를 준비한 고3 수험생들의 역차별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연세대는 앞서 올해 학종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고3 시기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 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결석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인하대는 코로나19 상황과 고교별 환경을 고려해 학종 서류평가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중 고3 비교과 활동은 재학생·졸업생의 유불리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조퇴 등 출결도 입시 평가에서 제외된다. 경희대·서

강대·성균관대 등은 학종에서 불가피한 출결 결손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들 대학은 논술전형에서 재학생을 포함해 모든 지원자의 출결, 봉사 등 비교과 영역을 만점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인하대도 출결 상황의 경우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결손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화여대는 캠퍼스내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모든 면접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경희대는 재외국민특별전형 중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응시생만 온라인으로 면접을 치른

다. 성균관대는 재외국민전형의 어학능력기준과 면접을 폐지한다.

고려대도 학생부비교과 영역은 코로나19를 고려해 평가하고 입학 면접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학교추천과 일반전형은 사전에 공개된 질문에 답변하는 영상을 직접 녹화해 제출하고, 다른 전형은 온라인 화상 녹화장에서 치른다.

한국외대는 학종 면접을 폐지하고 서류로만 평가한다. 학종에서 3학년 1학기 결석 사항을 포함해 수상·창의적체험활동(장제)·봉사활동 등도 공정하게 평가한다. 학생부교과전형과 논술전형의 비교과 항목인 출결·봉사는 일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정시에서는 출결·봉사활동으로 인한 감점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균관대는 학종에서, 연세대는 수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앙대는 학생부교과·논술·실기전형

지원자 전원에 봉사활동 점수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앙대는 면접과사 없이 서류 100% 평가로 이뤄지는 학종은 종합적인 정성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평가과정에서 비교과 부족분을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출결 결손을 반영하지 않는다. 재외국민전형은 의학부만 면접 고사를 치른다.

다만 대학들은 어떤 방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차질 재수생에 대한 역차별 등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고민이다. 이미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한 대입 전형 세부사항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에서, 한 곳을 손보면 그 영향으로 다른 곳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한 대학의 입학처장은 "교육 당국이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수험생들의 불안이 해소되긴커녕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라면서 "전형 운영에서 큰 틀을 움직이는 방법은 수험생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7월 중 대학별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숙명여대, 총장후보자가 직접 정책·비전 설명

'20대 총장후보 입후보자 정책토론회' 6월 말, 전 구성원 총장 직선제 선거

오는 6월 말 사상 최초의 전 구성원 총장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숙명여대가 총장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듣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15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교내 눈꽃광장에서 '제20대 총장후보 입후보자 소견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총장 후보자 4명의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총장 후보자로 나온 ▲문시연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교수 ▲강예진 영어영문 학부 교수 ▲유종숙 홍보광고학과 교수 ▲장유금 문헌정보학과 교수(기호순서대로)는 두 차례의 정책 토론회에서 대학의 장기적인 비전을 포함해 교육, 연구, 행정, 재정, 국제화 등 각 분야의 발



숙명여대가 6월 말 장학 이래 최초로 열리는 '총장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지난 16일과 18일 총장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듣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숙명여대

전계획과 주요 공약을 소개했다.

후보자들은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후보자 별 소견발표가 끝난 뒤에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학교 구성원들이 질의한 공통질문과 개별질

문에 답변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발열체크와 손소독 등 철저한 방역 속에 이뤄졌으며, 참석자도 사전에 신청받은 인원만 제한됐다. 대신 정책 토론회 전체 과정을 녹화해 온라인으로 방청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코로나 대응 학교긴급정비 추진

179건 사업 학교 자율판단 시행·결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육청 사업 긴급정비'를 추진한다. 학교 현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며 수업·생활지도와 같은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청 사업 긴급정비는 올해 시행하기로 했던 교육청 사업을 대대적으로 조정·축소·중단하는 내용이다. 이는 순차적 등교수업 시작에 따라 그동안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 등으로 추진이 연기됐던 사업이 일시에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교가 등교 수업 이후에도 수업·생활지도·방역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교육청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온 정책사업 정비와 달리 이번 긴급정비는 교육청과 학교가 동시에 정비를 추진했다.

학교 긴급정비는 총 예산액 2637억원에 규모인 179건의 사업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학교에 이미 예산이 교부된 목적성 경비 321건 중 특별교부금, 서울시 전입금과 같이 유관기관으로 정산·반납을 해야 하는 외부재원 사업 등 142건을 제외한 사업 대상이다.

이는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하는 목적사업의 경우 본래 목적에 맞추어 100% 사용해야만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이러한 사업조정으로 여유가 생긴 예산을 학교의 필요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이현진 기자

한국산업기술대, 신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

한국산업기술대 신기술분야융합디자인대학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신기술·신산업 분야 디자인·엔지니어링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은 한국디자인진흥원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산기대 박건수 총장과 한국디자인진흥원 윤주현 원장을 비롯해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 이재용 UNIST 부총장, 정소연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장, 함정현 한서대 학대외부총

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신기술분야융합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신기술분야 융합 디자인 석·박사 교육과정 운영 ▲실무 단기 집중 및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과정 등 공동학점 운영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공유 플랫폼 운영 ▲수요 맞춤형 산·학 연계 프로젝트 기반 인력 양성 ▲교육과 고용의 연계 및 성과확산 공유 등을 담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

세종대 무용과

동아무용콩쿠르 석권

세종대 무용과 학생들이 지난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제50회 동아무용콩쿠르'에서 상을 휩쓸었다.

21일 세종대에 따르면, 최서정(무용과·18) 학생과 권영주(무용과·19) 학생이 일반부 여자 현대무용 부문에서 금상과 동상을, 임정우(무용과·16) 학생과 오하라(무용과·16) 학생은 각각 일반부 남자 한국무용 전통부문 은상과 일반부 여자 한국무용 창작 부문 동상을 받았다.

/이현진 기자

순천향대, 바이오·헬스케어 사업화 속도

지티지웰니스와 업무 협약식

순천향대는 순천향대학교 기술지주회사와 지티지웰니스 간에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과 산업체 공동연구를 포함한 기술사업화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특화분야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 사업화 ▲관련 산업육성과 관계되는 장비·인력 및 시설지원 ▲자 회사의 기술 사업화 육성 및 투자 유치 공동 자문 ▲기술지원, 산업체공동연구를 위한 상호 협력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분야 및 산업발전



순천향대 교내 앙드레프레너관 회의실에서 19일 오전 서창수(순천향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오른쪽))와 김태현(지티지웰니스 대표이사(왼쪽))가 기술사업화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순천향대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